

1. 序
2. 去聲化의 實際
 - 2.1. 鷄林類事에서
 - 2.2. 朝鮮館譯語에서
 - 2.3. 16C 國語 二音節 體言에서
 - 2.4. 金海方言에서
3. 結

1. 序

高低의 音調를 지녔던 中世國語가 그 高低의 示差性에 混亂을 가져와 元來 示差的 資質이었던 高低가 剩餘的 資質로 물러나고, 元來 剩餘的 資質이었던 長短性이 示差的 資質로 擡頭됨에 依하여, 現代國語에서는 그 音調가 長短으로 對立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國語 音調 變遷에 對한 學界의 一般的인 說明인 듯하다.

筆者 역시 이에 對하여 異意를 가지지 않으나, 다만 그 說明過程에 있어 약간의 異見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許雄님은 「國語音韻學」의 <聲調의 消滅과 音長의 發生>에서,¹⁾

“15세기에 있어서는 달날의 말은 그 高低가 일정해 있었는데, 이 聲調는 이미 杜詩諺鮮(1481A. D.)에서 多少 變化하기 始作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去聲의 一音節體言에 一音節의 助詞가 붙으면, 이 語節은 거의 例外 없이 「去去聲」이었는데, 杜諺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去平聲」으로 變하는 傾向이 顯著하게 나타난다.

• 나리(20 : 11) • 니피(6 : 27) • 부든(6 : 5) • 프른(6 : 33) • 대와(20

1) 許雄 : 國語音韻學 p. 448

:6) 等

上聲의 경우에도 同一한 現象이 나타난다.

:돌히(6:51) :버디(6:36) :이룰(20:40) :버미(6:41) :버른(15:56) 等
그리고 平去聲 二音節 體言에 一音節助詞가 붙으면 平去去聲의 語節이 되는데, 杜諺에서는 平去平聲으로 變하는 傾向이 보인다.

어·르미(7:28) 수·프리(7:16) 아·드리(20:28) 기·르물(16:55) 等
이리하여 높은 가락이 漸次 낮아지게 된 結果,

1. 平聲과 去聲의 差가 없어지고,
2. 낮다가 높아가는 上聲은 平坦하게 되었다.

그런데 上聲은 낮다가 높아가는 複合聲調이었던 까닭에 平聲이나 去聲 보다는 多少 길게 發音되었을 것은 自然的인 傾向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高低가 平坦하게 되면서 去聲과 平聲은 짧은 소리로 合流했으나, 上聲만은 非辨別的 資質이 辨別的 資質로 變하여, 긴소리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古聲調의 上聲은 거의 다 現代語에서는 長音으로 發音되고 있다.

눈(雪) 돌ㅎ(石) 말(語) 새(鳥) 일(事) 等等”

이라고 하여, 一音節 助詞의 聲點은 1點인데, 杜諺以後부터 0點으로 變調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金完鎭님의 論文 <形態部 聲調의 動搖에 對하여>에서는, ²⁾

“許雄教授는 前記論文(筆者註: 旁點研究)의 處處에서 所謂 語節聲調를 論하며, 杜詩諺解에서의 變化形(筆者註: 語節末의 1點이 0點으로 바뀐 것)으로 示唆하고 있으나, 이 現象自體는 筆者가 例示한 바와 같이 이미 初期文獻(筆者註: 月印千江之曲, 釋譜詳節, 龍飛御天歌)에서 胚胎되고 있었던 것으로, 當時의 實際言語에서는 그보다 相當히 強力하게 作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였으므로 語節末音에서 1點과 0點의 混用은 杜詩諺解 以前에도 存在했음을 알 수 있음과 同時에, 引用文의 論旨로 보아, 金完鎭님은 語節末音의 平聲化 傾向을 許雄님보다도 더 前의 時代까지 遡及 適用하여 語末去平交替의 法則을 主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文孝根님도 論文 <韓國語 聲調의 變遷>에서, ³⁾

“……金剛經三家解(1482 A. D.)등에서 助詞·語尾의 末音節이 더

2) 金完鎭: 形態部聲調의 動搖에 對하여 p. 167(國語音韻體係의 研究 pp. 142~173)

3) 文孝根: 韓國聲調의 變遷 pp. 239—240 (李崇寧博士頌壽記念論叢)

러 平聲化하는 傾向과 過渡的 現象이 있기는 하였으나, ………, 그리고, 이러한 去音節이 平으로 바뀌는 傾向이 있어오다가 中宗朝에 가서 새로운 聲調組織이 이룩되었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16世紀의 「높고 조금 긴 소리」 去聲은 金剛經三家解 以來的 高(去)音節의 低(平)音化로 長母音語가 많은 湖南語에서는 더더 그 긴 資質을 取하여 높고 길게 내나, 서울 등에서는 低(平)音化(同時에 「조금 긴 소리」의 상실을 뜻함)의 完成으로 平·去는 平坦化하여 短音이 됨으로써 예사로 높은(가운데) 上聲과 對立하여 長短이 成立되었다고 생각된다”고 하여, 許雄님과 大同小異한 論說을 펴고 있다.

以上에서 多少 길게 引用한 세 분 學者님들의 主張을 綜合하면, 中世語에서 語節末音의 聲調는 1點이지만 聲調의 變動으로 말미암아 0點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原因이 되어 오늘날 京畿方言에서와 같은 長短音體系로 바뀌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筆者는 위에서 引用한 여러 學者님들의 主張과는 正反對의 主張을 하는 바이니, 즉 語末의 去聲(1點)이 平聲(0點)으로 變調된 것이 아니라, 語末의 平聲(0點)이 去聲(1點)으로 合流되는 過渡期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點이니, 그 理由를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去聲化의 實際

2. 1. 鷄林類事에서

鷄林類事는 11C末~12C初에 宋나라 孫穆에 依해 엮어진 것으로, 이에 340餘個에 達하는 高麗語가 收錄되어 있는데, 이들 資料를 살펴보면,

牛曰 燒^{去聲}
 乘馬曰 轄打^{平聲}
 油曰 畿^{入聲}林

과 같이 聲調의 註를 달고 있는 點으로 보아, 孫穆이 高麗語를 漢字로 轉寫할 때, 麗語에서 聲調를 認知하였으며 또 그 聲調를 考慮하고 記述했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筆者는 340餘個의 資料 中에서 用言으로 推定되는 語彙만을 골라 그 語末의 聲調를 살펴본 結果 다음과 같았다.

面美曰 捺翅朝勳(平聲)
 肥曰 塩骨眞(平聲)
 塩骨易成(平聲)

瘦曰安理(平聲) 塩骨眞(平聲)

洗曰遜時蛇(平聲)

飲酒曰蘇李麻蛇(平聲)

熱水曰泥根沒(平聲)

冷水曰時根沒(平聲)

下簾曰箔恥具囉(平聲)

寢曰作之(平聲)

輿曰你之(平聲)

坐曰阿則家囉(平聲)

問物多少曰密翅易成(平聲)

凡呼取物皆曰都囉(平聲)

存曰薩囉(平聲)

亡曰朱幾(平聲)

小曰胡根(平聲)

高曰那奔(平聲)

深曰及欣(平聲)

來曰烏囉(平聲)

有客曰孫集移實延(平聲)

客至曰孫烏囉(平聲)

客入曰屋裏坐少時(平聲)

不善飲曰安理(平聲) 麻蛇(平聲)

黃曰那論(平聲)

無曰烏不實(入聲)

語話曰替里受勢(去聲)

借物皆曰皮離受勢(去聲)

乞物曰念受勢(去聲)

有曰移實(入聲)

勸客盡食曰打馬此(上聲)

梁曰沒涕里(上聲)

(• 點은 筆者가 붙임. 그리고 () 안의 聲調는 廣韻에 依함)

위의 例에서 볼 때, 語末의 轉寫字에 上聲, 去聲, 入聲의 字들이 使用된 것도 나타나나, 대체의 傾向은 語末 聲調가 平聲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點은, 11C末~12C初의 中國音 平聲이 어떤 音調였던가 하는 點이다.

그러나 宋代의 聲調에 對한 明確한 記述은 찾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前後時代의 聲調記述에 依하면,

唐代 “平聲 哀而安” (唐僧, 處忠, 元和韻譜)

元代 { 平聲 重 初後俱低

平聲 輕 初昂後低 (日本僧, 子遵, 悉曇輪略圖抄)

明代 “平聲 平道莫低昂” (明僧, 真空, 玉鑰匙歌訣)

라고 하였으므로, 鷄林類事 편찬 당시의 宋代의 平聲은 그 音調가 訓民正音이나 訓蒙字會의 平聲記述과 別다른 差異가 없는 低調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高麗語의 用言 語末의 音調는 低調였음을 推定할 수 있고, 이 低調 朝鮮初에 와서는 高調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朝鮮館譯語에

朝鮮館譯語는 中國 譯官들의 朝鮮語學習을 爲해 譯어진 것으로, 그 編纂時期는 明의 永樂間(1403~1424. 李朝 太宗 3—世宗 6年)으로 推斷되고 있다.⁴⁾ 그런데 이 朝鮮館譯語 역시 鷄林類事와 마찬가지로 中國人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란 點에서 各 語彙에 聲調가 敏感하게 反映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앞의 鷄林類事의 用言 語末 聲調의 考察과 마찬가지로 方法으로 朝鮮館譯語에 나타난 用言으로 推定되는 資料만을 가려 뽑아 그 語末의 聲調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天晴 哈嗽二墨大(去聲, 全濁)⁵⁾

天高 哈(去聲, 全濁)

日出 害那格大(去聲, 全濁)

小風 哲根把論(平, 全清)

涼風 燦把論(平, 全清)

白雲 害故論(去, 全濁)

黃雲 勞論故論(上, 全清)

紅雲 本根故論(平, 全清)

黑雲 格悶故論(去, 不清不濁)

明年 我嫩害(去, 不清不濁)

早起 阿怎以你刺(入, 不清不濁)

4) 文璇奎: 朝鮮館譯語研究 p. 27

5) 同一한 語尾에 同一한 漢字가 使用된 例가 많이 나타날 경우 本稿에서는 한 개만 例示하였음

旱去 阿怎以你格刺(入, 不清不濁)

富人 憂怎撒論(平, 全清)

貧人 憂赧撒論(上, 不清不濁)

好人 朵恨撒論(去, 全濁)

見 播你(上, 不清不濁)

問 母勒(入, 不清不濁)

洗面 赧世色(入, 全清) 等等

위의 例에서 보면, 用言 語尾의 轉寫字에 平·上·去·入聲字가 두루 나타나고 있어 어떤 一定한 傾向을 導出할 수가 없는 듯하나, 中國音의 聲調의 變遷을 생각할 때 事情은 달라진다.

이를테면, 「譌譯老乞大朴通事凡例」에 依하면, 傳通的 中國音 四聲은 16C初에 이미 聲調의 分化가 完成된 것을 볼 수 있으니, 中國音 四聲과 國語 旁點間의 對應關係를 表로 보이던 다음과 같다. ⁶⁾

<表 1>

四 聲	清 濁	通 攷 點	16C初 漢 音		
			凡 例	性 質	實 際
平	全清, 次清, 全濁, 不清不濁	0	1	輕呼而稍舉	1
		0	2	先低而中按後厲而且緩	2
上	全清, 次清, 不清不濁 全濁	2	0	低而安	0
		2	0		1
去		1	1	直而高	1
入	(韻部母音의 性質에 依해)	1	1	直而高	1
		1	2	先低後厲而促急	2

위의 <表1>에 依하여 語尾의 聲調를 다시 整理해 보면, “大, 根, 擽, 害, 悶, 嫩, 刺, 怎, 恨, 勒, 色” 등의 字가 쓰인 用言의 語尾 聲點은 1點이며, “論, 赧, 你” 등의 字가 쓰인 用言의 語尾 聲點은 0點이라는 事實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朝鮮館譯語가 엮어진 時代의 國語 用言의 語節末 聲調는 聲點 1點이 主가 되고, 0點이 副가 됨을 알 수 있음은 물론, 鷄林 類事의 用言語末의 0點이 朝鮮館譯語에 와서는 그 音調가 0點에서 1點쪽으로 變遷을 일으켰음을 추측할 수 있다.

6) 拙論: 16C 國語聲調研究 p.31 참조 (韓國語研究 I, 嶺大大學院)

2.3. 16C國語 二音節體言에서

中世國語 二音節 體言에서 「上去」型和 「上平」型은 서로 混亂을 일으켰는데, 許雄님은 金海方言에서 이 둘은 함께 「低中調」로 實現된다고 하였다. 7) 그렇다면 여기서 問題가 되는 點은, 中世語에서 「上去」型和 「上平」型이 完全히 同一한 調值를 가진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쪽의 音調는 調和를 이루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한쪽으로 變調를 일으킨 것이냐 하는 點이다.

그런데 中世國語의 二音節 漢字語(合成語 포함)의 聲調型을 살펴보면, 聲點 2點의 漢字와 聲點 1點의 漢字가 結合하여 二音節 漢字語를 形成할 때는 「2+0」型→「2·1」型和 같은 變調가 일어나는데 比하여, 聲點 2點의 漢字와 聲點 1點의 漢字가 結合하여 二音節 漢字語를 形成할 때는 「2+1」型이 「2·0」型으로 實現된 語彙는 한 개도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은 事實은 二音節語의 聲調型 「2·0」型 (上平聲)과 「2·1」型 (上去聲)이 同一한 調值가 아니라는 事實을 알려준과 同時에 「2·0」型이 「2·1」型으로 合流되는 過渡期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뿐만 아니라, 漢字가 合成하여 漢字語를 形成할 때 보여 주는 이러한 現象—固有語가 合成할 때도 마찬가지 現象을 볼 수 있다. —은 固有語 二音節 體言의 聲點型「2·0」과 「2·1」의 混亂의 原因을 究明해주는 열쇠가 된다고 하겠다. 즉 中世語에서의 「2·0」型和 「2·1」型的 混亂은 同一한 調值를 가지고 相互交替될 수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2·0」型的 語末 平聲(0點)이 去聲化(1點化)하는 過渡期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

2.4. 金海方言에서

許雄님에 依하면, 金海方言에서는 中世語의 平聲(0點)은 高調로, 去聲(1點)은 中調로, 上聲(2點)은 低調로 整然한 對應關係를 이루며, 또한 音調의 連結에 있어서 二段를 뛰어 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9) 그리고 一音節助詞들은 金海方言에서는 中調로 對應되어, 그 앞의 體言이 平·上·去聲 어느 것이 오든지 相關없다고 했다.

(例) 말(馬) 이…………高中

말(斗) 이…………中中

7) 許雄: 旁點研究

8) 前掲拙論 참조

9) 許雄: 前掲書

말(語) 이……………低中

(中世語에서 馬는 0點, 斗는 1點, 語는 2點임)

그런데 中世語에서는 一音節助詞들은 平聲(0點)과 去聲(1點)으로 混亂되었으나, 金海方言에서는 이 둘은 統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合流되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合流되지 않고 둘 다 金海方言에서 同價로 實現되었을까?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된다.

① 中世語에서 一音節助詞가 平聲(0點)이었다고 假定하면, 金海方言에서, 一音節體言에 連結될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체언)		(조사)		(음조)
平	+	平	—	高高……………㉠
去	+	平	—	中高……………㉡
上	+	平	—	低高……………㉢

그런데 위의 ㉢의 경우는 低高調가 되어 金海方言의 特徵인 二段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原則에 어긋남으로, 이는 低中調 혹은 中高調로 變調될 可能性이 있다. 그러나 ㉠과 ㉡은 助詞의 音調가 中調로 變調될 可能性은 찾을 수 없다.

② 中世語에서 一音節助詞가 去聲(1點)이었다고 假定하면, 金海方言에서 一音節體言에 連結될 경우는 다음과 같이 된다.

(체언)		(조사)	(음조)
平	+	去……………	高中
去	+	去……………	中中
上	+	去……………	低中

으로 되어 위의 例와 一致된다.

그런데 金海方言의 一音節助詞의 中調와 中世語 一音節助詞의 去聲이 對應關係를 이룬다는 事實은, 中世語에서 混亂을 보인 語節末의 平·去聲이 金海方言에서 統合되었음을, 즉 平聲이 去聲으로 合流되었음을 알려주는 同時에, 學者들이 말하고 있는, 語末의 去聲이 平聲으로 바뀌어 가는 傾向은 存在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論據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注意해 둘點은 1點→0點의 傾向이 一時的으로 일어났다가 中斷된 것이 아니냐 하는 點인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本稿의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二音節語에서 「2·0」~「2·1」型の 混亂이 있었는데, 이들의 混亂은 持續性을 가지고 「2·1」型으로 合流되고, 여

기서 말하는 語節에서의 助詞의 混亂은 持續性이 없었다는 것은 수증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點은 平聲(0點)으로 實現된 一音節 助詞의 出處는 무엇이냐가 되겠는데, 이에 對하여 筆者는 中世以前의 國語一音節 助詞의 聲調는 平聲(0點)이었었는데, 이것이 聲調의 變化로 말미암아 去聲(1點)으로 바뀌어지고, 이 去聲化는 中世語에서도 完成을 보지 못하여 去聲과 平聲의 混亂을 일으킨 것으로 解析하고자 한다.

3. 結

以上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高麗語의 轉寫로 推定되는 鷄林類事에 나타난 用言의 語末 聲調는 平聲이었으며, 李朝初期語(訓民正音 創製前)의 轉寫로 推定되는 朝鮮館譯語의 用言 語末의 聲調는 去聲이 주가 되고, 平聲이 副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16C의 體言의 경우에 있어서도 語節末에서의 去聲化를 짐작할 수 있었으며, 金海方言에서는 曲用에서의 去聲化의 完成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國語音調變遷過程에서 볼 때, 高低의 音調가 長短의 音調로 바뀐 現象은 어떻게 說明할 것이냐?

이에 對하여는 語節末音(및 語末)에서 平聲의 去聲化는 聲調體系에까지 影響을 끼쳐, 平聲(0點)은 去聲(1點)으로 合流되어 1點으로 되고, 또 上聲(2點)은 그대로 2點으로 存續하여, 1點과 2點만이 남게 된다. 그런데 1點과 2點은, 崔世珍의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의 <國音條>의 說明에 依하면, 둘 다 仄聲이기 때문에 示差性이 弱해져, 1點에서는 短音, 2點에서는 長音을 取해 示差性을 強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